

4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마무리 학습

EBS 교재·방송강의 적극 활용하라

오답노트 참고, 풀었던 문제 재점검 자연계 쏠림 수리영역 철저 준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무리 학습전략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문항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토대를 다져 어떤 방식의 출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종 마무리 학습은 EBS 교재나 인터넷·방송 강의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풀었던 문제 재점검해야=남은 40여일 동안 가장 중요한 전략은 체계적인 마무리에 성공함으로써 결전의 날 자신의 실력을 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고난도·신유형의 문제가 성패를 좌우하겠지만, 실수를 최소화하려면 새로운 문제풀이 시간을 다소 줄이고 풀었던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신 있는 영역이라고 오래 손을 놓았다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잘 배분해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다져놓아야 한다. 중위권 학생은 정확한 개념 대신 '감'으로 문제를 풀다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 오답노트를 활용해 정답과 오답을 분석하며 푸는 연습을 해야 고득점에 근접할 수 있다.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정리를 위해 우선 교과서를 찬찬히 다시 읽고 기

본부터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암기보다는 정독을 통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최중 마무리는 EBS 교재·방송강의로=지난 2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EBS 교재 연계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입시전문가들은 일단 최종 마무리 학습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 모두 어려운 문제보다는 주로 평이한 문제에서 EBS와 연계가 두드러진 만큼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문도 있다. 즉, EBS 연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문항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토대를 다져 어떤 방식의 출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수리영역=올해 수능 원서접수에서도 수리영역에서 문과형인 나형을 선택한 응시생이 대다수여서 몇 년째 '나형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이과형인 수리 가형에 지원한 수험생은 15만1889명(21.3%)으로 나형을 선택한 응시생(51만5202명, 72.4%)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문이과 교차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쉬운 나형을 택한 수험생이 많다는 의미다. 과탐과목 영역에 지원한 수험생이 24만1천486명이나 되지만 수리 가형 지원자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8만명 이상의 자연계 학생이 가형 대신 나형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 학생과의 경쟁'을 고려해 수리영역 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카지노 교육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광산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1차 면접에 앞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취업준비 '맞춤형 스테디' 인기

1차 합격자끼리·특정 직군 지원자끼리... '반짝 스테디' 선호

#1. 방송사 PD(프로듀서)가 꿈인 이모(28·광주시 서구 치평동)씨,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졸업 같은 학교 출신 취업준비생들과 토론 스테디를 했던 이씨는 최근 취업 전략을 바꿨다. 같은 방송사 PD 공채 지원자들과 함께 새로운 스테디를 만들어 공부한 것. 이씨는 새로 만든 스테디의 도움으로 최근 2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현재 나머지 전형 준비하고 있다. #2. 최근 서울 모 대기업 연구개발직 공채에 지원한 강모(여·24·남구 월산동)씨, 강씨는 지난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뒤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 스테디 참가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2차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단, 스테디 참가자는 자신과 같은 기업 연구개발직에 지원한 사람 중 1차 전형 합격자로 제한했다. 강씨는 2차 전

형에 합격할 경우 또 다시 2차 전형 합격자들과 함께 3차 전형을 준비하는 스테디를 만들 계획이다. 본격적인 하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될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하는 스테디의 종류와 형식이 '맞춤형'으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토익 스테디, 면접 스테디 등 비교적 포괄적인 단위의 스테디가 유행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같은 기업에서도 특정 직군 지원자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방식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특정 기업 채용 공고가 발표될 때마다 평소 참여하던 스테디 대신, 같은 기업의 지원자들과 모여 스테디를 꾸렸다가 전형이 끝나자대로 해체하는 '반짝 스테디'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최대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 중 하나인

'취업뽀개기'에는 'A기업 B직군 3차 면접 스테디 참가자 찾습니다'라는 형식의 글이 하루 평균 20~30개씩 꾸준히 등록된다. '맞춤형' 또는 '반짝 스테디'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스테디'를 통해 지난달 국내 한 대기업에 입사한 박모(30)씨는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 보니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형태의 스테디가 자칫 취업준비생에게 '땀'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한다. 같은 기업, 같은 직종 지원자끼리 모여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돼 되레 입사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종기자 kimho@kwangju.co.kr

방통대 6대 총장 조남철박사 취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제6대 총장으로 조남철(59세) 박사가 1일 취임한다. 조남철 신임총장은 지난 7월 14일 총장임명추천위원회의 제6대 총장 후보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됐으며, 방송대 교수출신 총장으로는 세 번째로 4년의 임기 동안 방송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 조 총장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문화연구학회 회장, (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사)재외동포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조 총장은 "개교 50주년이 되는 2022년을 준비하며, 원격교육을 바탕으로 미래형 첨단 캠퍼스를 구현해 평생교육의 중심대학으로 그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김성수가 1일자로 광주·전남지역대학장에 취임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 '한일관계' 학술심포지엄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소장 김정래)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동아시아에서 본 한일관계'를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일합병 100년을 맞이해 한일 문학·문화·역사 등을 점검하고 한일관

계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강연은 '타자로서의 일본, 내면화의 일본-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100년을 돌아보며'에 대해 메이지학원대학 요모타 이누히코 교수가 진행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전남대학교는 부설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완 교수)이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연구단은 2018년까지 9년간 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 디아스포라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 민족문화유산과 문화영토, 동북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지구적 소통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한상네트워크와 한민족문화공동체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또 2007년부터 금년까지 '근현대 100년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지식정보자원 발굴 및 DB구축' 사업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민족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 전담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학 지역봉사 한마당 축제

주민들 초청 건강 클리닉·돌보기 증정

동강대학(류재민 총장)이 최근 대학 축제인 '범두골 대동한마당(9월29일~30일)'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치러 호평을 받았다. 동강대 8개학과는 지역 주민을 초청해 학과별 전공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간호과의 무료건강 클리닉과 안경광학과 무료검안 및 돋보기 증정, 응급구조과의 심폐소생술 교육, 임상병리과의 동맥경화·헬리코박터·간염·소변검사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Text: www.geumsoo.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레스토랑 홀플러스 건너편). Features: 4만원부터, Free WiFi, 4-5만 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24시간 편의점, 무료 주차, 무료 셔틀버스, 무료 아침 식사, 무료 세탁, 무료 드라이클리닝, 무료 주차, 무료 셔틀버스, 무료 아침 식사, 무료 세탁, 무료 드라이클리닝.

Advertisement for movieholics. Text: 영화에 빠지다, 행복한 연인과 함께!!, MEGABOX, CINUS. Lists movies and showtimes for various theaters like Columbus Cinema and Megabox. Includes contact info for Megabox (1544-0600) and Cinus (1588-7941).